

## 추천 1.

# 꽃, 열매가 아름다운 조경수

김호준 박사 / 그린과학기술원 원장

꽃이 아름다운 나무가 열매도 아름답다면 그건 바로 신이 내린 선물일 것이다. 꽃이 아름다우면 열매는 보잘 것 없고, 열매가 탐스러우면 꽃이 보잘 것 없다.

봄의 상징 목련을 봐도 그렇다. 순백의 꽃이 화려하게 봄을 장식해도 꽃이 진 다 음의 열매는 눈길을 끌지 못한다. 신은 꽃이나 열매, 어느 한쪽만의 아름다움을 선 물했다. 그런데, 신의 안배가 형평성을 깨고 꽃과 열매 둘 다 아름다운 나무가 있 다. 복사꽃과 살구나무가 그러하고 산수유와 때죽나무 또한 그렇다.

열매는 사람이든 식물이든 고난을 이겨 낸 하나의 결과물이다. 우리가 어떤 목표 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결실을 맺었다 하고, 인고(忍苦)의 끝에 목적인 바를 이루어냈을 때도 흔히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고 표현한다. 이 모든 것이 식물이 봄부터 싹을 틔우고 각종 병해충에 시달리면서 가뭄과 장마를 이겨낸 끝에 가을의 상징인 찬란한 열매를 맺는 데에서 유래한 것이다.

식물의 열매란 과학적으로 보면 꽃이 피고 수분(受粉)과 수정(受精)을 통하여 씨 방이 자란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과정은 복잡하고 신비하다. 동물처럼 싹을 찾 아 이동하지 못하므로 종족보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매자가 있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찰나의 기회도 놓치지 말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중매자 벌과 나비를 유혹하기 위해서는 꽃이 화려해야 하고, 화려하지 못한 꽃은 향기라도 강해야 한다. 화려하지도 향기도 없는 꽃은 꽃가루를 날려줄 바람에 의존 해야 한다. 바람이라고 해서 늘 부는 것도 아니다. 꽃가루를 날려 암술에 실어줄 바 람 때를 또 놓치지 말아야만 한다. 이러한 고충 끝에 맺은 열매들이니 어찌 아름답 지 않겠는가!

이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해 심는 것이 바로 조경수목이다. 조경수(造景樹)라고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봄에 화려하게 피는 꽃나무를 떠올린다. 아마도 이것은 시 작의 계절에 화려하게 피는 꽃이 우리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래서 봄이 지나고 나면 여름과 가을에는 의례히 꽃피는 풍경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봄이란 화려하게 꽃피는 계절이고 여름은 당연히 꽃 없는 계절, 가을은 단풍 의 계절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경대상이 가정의 작은 정원이든 또 도심의 공원이나 골프장과 같은 대면적의 공간에서든, 조경이란 「봄은 봄다워야 하고 여름은 여름답게, 가을은 가을다워야 하고 겨울은 또 겨울답게」 조성되어야 한다. 봄에는 목련과 벚꽃이 화려하고 여름

에는 신록이 그늘을 만들며, 가을은 단풍과 열매가 풍성한 그러한 골프코스 조경을 추천하고 싶다.

## 1. 인동과 수목

### ■ 꽃, 열매가 아름다운 수종

인동과(Caprifoliaceae) 수목은 딱총나무속(Sambucus), 털썩나무속(Viburnum), 땃강나무속(Abelia), 병꽃나무속(Weigela), 인동속(Lonicera)이 있다.

인동과 수목에는 꽃이나 열매 중 어느 한쪽이 아름다워 조경적 가치가 높은 나무가 많다. 딱총나무속의 딱총나무는 열매가 아름답고 땃강나무속, 병꽃나무속과 인동속 수종은 꽃이 아름답다. 털썩나무속의 가막살나무와 털썩나무는 열매가 아름다우며 분단나무와 백당나무는 꽃과 열매 둘 다 아름답다.

### ■ 꽃, 열매가 아름다운 인동과 조경수

| 구 분                 | 꽃이 아름다운 수종         | 열매가 아름다운 수종       | 꽃, 열매가 아름다운 수종          |
|---------------------|--------------------|-------------------|-------------------------|
| 딱총나무속<br>(Sambucus) | -                  | 딱총나무, 말오줌나무(말오줌때) | -                       |
| 털썩나무속<br>(Viburnum) | 분꽃나무, 불두화          | 아왜나무              | 분단나무, 백당나무, 가막살나무, 털썩나무 |
| 땃강나무속<br>(Abelia)   | 땃강나무, 줄땃강나무, 꽃땃강나무 | -                 | -                       |
| 병꽃나무속<br>(Weigela)  | 붉은병꽃나무, 병꽃나무       | -                 | -                       |
| 인동속<br>(Lonicera)   | 인동덩굴               | 괴불나무              | -                       |

### ■ 털썩나무속(Viburnum) 조경수

꽃과 열매가 아름다운 털썩나무속(Viburnum) 수종은 상록활엽 교목성인 아왜나무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낙엽활엽성 관목이다. 5~6월에 개화하고 열매는 9월에 붉게 익는다. 다만, 분단나무는 붉은 열매가 검게 숙성한다. 그런데, 이들 수종 중 분단나무와 백당나무, 가막살나무와 털썩나무는 외형적으로 서로 유사하여 구분하기 어렵다.

## ■ 털꿩나무 속(Viburnum) 수종

| 수 종                                     | 학 명  | 관상 대상   |
|---|--|---------|
| 아왜나무(상록활엽수)                             | <i>Viburnum awabuki</i> K. Koch  | 열매      |
| 분꽃나무<br>섬분꽃나무<br>산분꽃나무                  | <i>Viburnum carlesii</i> Hemsley<br><i>V. carlesii</i> var. <i>bitchuense</i> Nak.<br><i>V. burejaeticum</i> Regel et Herder   | 꽃       |
| 분단나무                                    | <i>Viburnum furcatum</i> Blume   | 꽃<br>열매 |
| 산가막살나무<br>덧잎가막살나무<br>무점가막살나무            | <i>Viburnum wrightii</i> Miquel<br><i>V. wrightii</i> var. <i>stipellatum</i> Nak.<br><i>V. wrightii</i> for. <i>eglandulosum</i> Nak.   | 꽃<br>열매 |
| 가막살나무<br>털가막살나무                         | <i>Viburnum dilatatum</i> Thunb.<br><i>V. dilatatum</i> for. <i>hispidum</i> Nak.  | 꽃<br>열매 |
| 털꿩나무<br>가새털꿩나무(가새백당나무)<br>개털꿩나무(개백당나무)  | <i>Viburnum erosum</i> Thunb.<br><i>V. erosum</i> var. <i>taquetii</i> Rehder<br><i>V. erosum</i> var. <i>vegatum</i> Nak.   | 꽃<br>열매 |
| 배암나무                                    | <i>Viburnum koreanum</i> Nak.  | 열매      |
| 백당나무<br>청백당나무(민백당나무)<br>털백당나무<br>불두화(꽃) | <i>Viburnum sargentii</i> Koehne.<br><i>V. sargentii</i> for. <i>calvescens</i> Rehder<br><i>V. sargentii</i> for. <i>puberulum</i> Nak.<br><i>V. sargentii</i> for. <i>sterile</i> Hara | 꽃<br>열매 |

### (1) 분단나무와 백당나무

#### ■ 분단나무와 백당나무 이야기

분단나무는 제주도와 울릉도가 자생지인 낙엽관목으로서 잎은 거의 원형에 가깝다. 측맥이 다소 오목하게 함몰된 듯 뚜렷해 관상가치가 있고 7~10개로 갈라진다. 잎 가장자리에는 복거치가 있다.

한편, 백당나무는 우리나라 전역의 숲에 자라는 낙엽관목으로서 비교적 토양수분이 많은 산자락 또는 계곡부에 서식한다. 분단나무와는 달리 잎 끝이 3갈래로 갈라지는 것이 특징이고 잎의 상단부에만 약간의 거치가 있다. 두 수종 모두 잎자루에 탁엽(托葉)이 있는데, 백당나무는 2개의 밀선(蜜腺)이 있는 것이 다르다.

꽃차례는 두 수종 모두 취산화서(聚散花序)로서 새가지 끝에 달린다. 꽃은 5월에 피는데, 중앙부에 여러 개의 작은 양성화(兩性花)가 달리고 가장자리에 직경 2~3cm의 큰 백색 중성화(中性化)가 돌아가면서 핀다. 가장자리의 큰 꽃 중성화는 암

술이 있으나 성숙하지 못하고 중앙부의 작은 꽃들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중성화는 암술과 수술이 퇴화하여 무성화(無性花)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왜 열매도 맺지 못하는 중성화가 피는 것일까?

여기에는 비밀이 있다. 중앙부의 양성화는 너무도 작고 초라해 미모(?)로는 도저히 벌과 나비를 유혹할 수 없을 정도다. 색깔도 눈에 띄지 않고 향기도 그리 강하지 못해 대척을 세우지 않으면 후대를 이어가지 못할 위기에 처한 꽃이다. 그래서 묘안을 짜낸 것이 중앙부의 초라한 진짜 꽃 주위를 화려한 가짜 꽃으로 치마폭처럼 휘둘러 벌과 나비를 유혹하기에 이른 것이다.

벌과 나비는 너무도 화려한 꽃에 이끌려 내려앉게 되고, 꿀을 따는 동안 꽃은 수분되고 수정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양성화가 수정이 되면 중성화는 더 이상 자기에게는 오지 말고 얼른 다른 꽃에 가라고 옆으로 방향을 틀면서 시들어 버린다. 참으로 신비하고도 가슴 뭉클한 장면이다.

그런데, 이들은 왜 하얀 꽃이 필까?

이것 또한 빛의 반사작용을 이용한 꽃의 작전이다. 분단나무와 백당나무는 관목으로서 숲속의 큰 나무 밑에서 자라는 수종들이다. 숲 속은 어둡다. 녹색의 어두운 숲에서 어떤 색깔이 눈에 가장 잘 띄까? 빨강도 노랑도 아닌 흰색이다. 그래서 벌과 나비들이 자신을 지나쳐 가버리지 않도록 눈에 잘 띄는 하얀색의 꽃을 피우는 것이다. 자연의 오묘함은 참으로 끝이 없다.

## ■ 분단나무와 백당나무 구분

| 구 분 | 특 징 | 분 단 나 무  | 백 당 나 무  |
|-----|-----|--|--|
| 줄기  | 골속  | 희다.  | 4각형으로 희다.  |
| 잎   | 배열  | 대생. 막질   | 대생   |
|     | 모양  | 넓은 난형(거의 원형)<br>둔두~급첨두. 심장저~설저<br>복거치<br>측맥 7~10개로 갈라진다. | 끝이 3개로 갈라짐(윗가지 있는 갈라지지 않기도 함.).<br>점첨두. 원저<br>상단부에만 약간의 거치 있다. |
| 잎자루 | 탁엽  | 탁엽 2개  | 탁엽 2개. 밀선 2개   |
| 꽃   | 개화  | 5월. 중성화 있다.  | 5월. 중성화 있다.  |
| 열매  | 모양  | 타원형~구형. 핵과<br>종자 양쪽에 1줄 홈 있다.                            | 구형. 핵과   |
|     | 성숙  | 9월 붉은색에서 검게 익는다.   | 9월 붉게 익는다.   |

■ 분단나무 꽃과 측맥이 뚜렷한 잎의 모양



■ 분단나무 열매와 숙성한 검정색 열매



■ 분단나무 수형과 화려하게 개화한 가지(우)





## ■ 백당나무 꽃과 3개로 갈라진 잎의 모양



## (2) 가막살나무와 덜꿩나무

### ■ 가막살나무와 덜꿩나무 이야기

두 수종 모두 황해도 이남에 자라는 낙엽관목으로서 가막살나무의 잎은 백당나무 처럼 거의 원형에 가깝다. 덜꿩나무 잎은 좁고 짧은 형으로서 가막살나무 잎보다 상대적으로 작고 길쭉한 모양새다.

또 가막살나무의 잎은 뒷면에 털이 드문드문 있지만, 덜꿩나무는 성모가 뽁뽁하다. 잎자루도 차이가 있다. 가막살나무는 6~20mm로 길어서 잎이 꽃송이 밑으로 바짝 붙어 감싸듯 한 모습이다. 이에 반해, 덜꿩나무 잎자루는 2~6mm로 짧아 꽃송이 가까이에 붙지 않아서 꽃송이가 솟아있는 모습이고 2개의 턱엽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막살나무는 열매를 까마귀가 잘 따먹는데서 따온 이름이라고 한다. 까마귀가 먹고 살아간다는 의미도 있음직하다. 또 덜꿩나무는 들꿩이 이 열매를 좋아한다는 데서 따온 이름이다. 봄철에는 어린순을 따서 데쳐 나물로도 먹고 열매는 감기, 소화불량, 아토피, 기미, 주근깨에 약효 있다고 한다.

### ■ 가막살나무와 덜꿩나무 구분

| 구분 | 특징   | 가막살나무                          | 산가막살나무              | 덜꿩나무            |
|----|------|--------------------------------|---------------------|-----------------|
| 가지 | 어린가지 | 성모 있다.<br>선점 있다.<br>약간의 각이 진다. | 성모 거의 없다.<br>선점 있다. | 성모 밀생<br>선점 없다. |

| 구분 | 특징  | 가막살나무   | 산가막살나무  | 덜꿩나무   |
|----|-----|---|---|--|
| 잎  | 배열  | 대생  | 대생  | 대생   |
|    | 모양  | 길이 6~12cm<br>넓은 난형(거의 원형)<br>급 점첨두<br>원저~아심장저<br>드문 거치<br>양면 별모양 털이 드물게 있고 뒷면에 선점 있다. | 길이 8~14cm<br>넓은 난형(거의 원형)<br>급 점첨두<br>원저~넓은 설저<br>치아상 거치<br>앞면 털 없고 뒷면은 선점 있고 엽맥에 털 있다. | 길이 4~10cm<br>난형~도난형(타원형)<br>점첨두<br>원저~심장저<br>치아상 거치<br>성모가 앞면에는 드물게 뒷면은 밀생(가막살나무는 드물다). 맥액에 갈색~흰색 긴털 있다. |
|    | 잎자루 | 길이 6~20mm<br>탁엽 없다.   | 길이 6~20mm<br>약간 붉고 긴 털 있고, 탁엽 없다.   | 길이 2~6mm<br>털 있고 탁엽 있다.  |
| 꽃  | 모양  | 복산형화서<br>기부에 탁엽 2개<br>꽃잎에 성모와 선점 있다.<br><br>화관보다 긴 수술                                 | 산방화서<br>기부에 탁엽 2개<br>꽃자루에 털이 있거나 없고 선점 있다.<br>꽃받침 털 없다.<br>화관보다 긴 수술                    | 복산형화서<br>기부에 탁엽 2개<br>꽃잎에 성모 밀생<br><br>꽃받침 성모 있다.<br>화관보다 긴 수술   |
|    | 개화  | 5월  | 5월  | 5월   |
| 열매 | 모양  | 넓은 난형. 핵과   | 넓은 난형. 핵과<br>종자 뒷면에 2개,<br>앞면에 3줄 홈 있다.   | 넓은 난형. 핵과<br>종자 양쪽에 홈 있다.  |
|    | 숙성  | 9월 붉게 익는다.  | 9월 붉게 익는다.  | 9월 붉게 익는다.   |

■ 가막살나무 꽃과 잎의 모양, 붉게 익은 열매(우)



#### ■ 털뽕나무 꽃과 잎의 모양



### (3) 골프코스 조경

#### ■ 티잉그라운드 주변의 사면 조경에 어울리는 나무

분단나무, 백당나무, 가막살나무와 털뽕나무는 흰색의 꽃과 붉은 열매가 화려하고 아름답다. 그러나 나무가 작고 꽃과 열매도 잔잔한 크기여서 가까운 시야권의 근거리 식재에 어울리는 나무다.

골프장에 도입하고자 할 경우, 플레이어들이 오래 머무는 1번 Hole이나 Short Hole 또는 각 홀의 티잉 그라운드(Teeing ground) 주변 경사면에 식재하면 좋다. 일정한 면적에 걸쳐 1주씩 펼쳐 군식하면 5~6월에는 화려한 꽃을, 9~10월은 붉은 열매를 감상할 수 있다. 꽃과 열매를 감상한 골퍼(Golfer)는 1타를 줄이는 행운을 얻게 될 것이다.

#### ■ 이동로 주변 좌우에 어울리는 나무

걸어가든 골프카를 타고 이동하든 이동로 입구에서 시작하여 다음 홀의 티잉 그라운드에 도달하기까지 생 울타리처럼 열 지어 심어도 좋다. 다음 홀로 이동하는 시간동안 플레이어(Player)들은 향기와 색감의 향연을 누리게 될 것이다.

#### ■ 개활지에 모아심기

경기를 마친 플레이어들이 그린에서 골프카를 향해 이동하는 동선 가까이에 식재해도 좋다. 순백의 꽃을 본 플레이어들은 마음을 비우고 심기일전하여 다음 홀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식재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3주씩 모아심기 하여 마치 1주의 독립수처럼 또 덩불형으로 가꾸어도 좋다. 특히 교목이 드문드문 식재된 넓은 지역에 하목(下



木)으로 식재하거나 그린 주변에 식재해도 어울린다. 키가 크지 않아 아담한 수형을 이루며, 병해충 피해도 적어 관리가 수월한 편이다.